

◇ 書 評 ◇

『조선시대문서개론』

전 경 목\*

한국의 고문서 연구는 수도우 요시유키(周藤吉之)와 박병호 교수 등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1981년에 최승희 교수의 『한국고문서연구』가 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이어 1988년에 허홍식 교수가 『한국의 고문서』를 출간하여 연구에 활기를 더했다. 그 후 오랜 기간 고문서에 대한 개설서가 간행되지 않았는데 2020년에 젊은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 고문서 입문』이 그리고 2021년에 이강욱 한국승정원일기연구소장이 『조선시대문서개론』을 간행했다. 이 두 저술의 출간은 최근 한국 고문서학계의 대단한 경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는 최승희 교수의 저작 이후 여러 방면에서 그동안 축적되어온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젊고 새로운 시각에서 이루어진 저술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후자는 국왕이 주고받은 문서를 집중적으로 심화 연구한 개론서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글은 후자에 대한 서평이며 전자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은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이강욱 소장은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유교경전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고전번역원 수석전문위원과 한국승정원일기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역서로는 『은대조례』, 『흠흠신서』(공역), 『일성록』(공역), 『교점역해 정원고사』(해설)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대간계사에 대한 고찰」 등 여러 편이 있다. 현재 사단법인 은대고전문헌연구소 번역자문위원 및 은대학당장을 겸직하고 있다.

『조선시대문서개론』은 상하 두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록된 내용은 각각의 부제(副題)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즉 상권에는 신민(臣民)의 상달문서(上達文書)가 그리고 하권에는 국왕의 하달문서(下達文書)가 수록되어 있다. 우선 각 권의 목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 상권 목차

일러두기/ 머리말/ 총론/ 1장. 계본(啓本)/ 2장. 계목(啓目)/ 3장. 장계(狀啓)/ 4장. 서계(書啓)/ 5장. 초기(草記)/ 6장. 기사(啓辭)/ 7장. 대간기사(臺諫啓辭)/ 8장. 단자(單子)/ 9장. 별단(別單)/ 10장. 상소(上疏)/ 11장. 차자(笱子)/ 12장. 정사(呈辭)/ 13장. 상언(上言)/ 14장. 격쟁원정(擊錚原情)/ 15장. 전문(箋文)/ 16장. 치사(致詞)/ 부록/ 참고문헌

#### 하권 목차

일러두기/ 머리말/ 총론/ 1장. 하교(下教)/ 2장. 전교(傳教)/ 3장. 교서(教書)/ 4장. 교지(教旨)/ 5장. 전지(傳旨)/ 6장. 유서(諭書)/ 7장. 유지(有旨)/ 8장. 유지(諭旨)/ 9장. 윤음(綸音)/ 10장. 판부(判付)/ 11장. 비답(批答)/ 12장. 봉서(封書)/ 13장. 교명(教命)/ 14장. 책문(冊文)/ 15장. 대리청정(代理聽政)과 동궁문서(東宮文書)/ 부록/ 참고문헌

상권에는 신민이 국왕에게 제출한 15종의 상달문서에 대한 유래와 변천 및 서식과 실제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국대전』에 문서식(文書式)이 실려있는 계본과 계목 2종, 『전율통보』에 수록된 전문, 초기, 장계, 상소, 차자, 상언, 정사, 단자 8종, 그리고 현존 사료나 문서에 보이는 기사, 서계, 별단, 격쟁원정, 치사 5종의 문서에 대해 하나하나 소개하고 상세한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 이 중 전문과 치사를 제외한 13종의 문서는 신민이 작성하여 승정원을 통해 국왕에게 제출한 문서이다.

하권에는 국왕이 작성해서 신민에게 보내는 14종의 하달문서에 대한 유래와 변천 및 서식과 실제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책의 끝에 왕세자가 대리청정할 때 작성한 동궁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일종의 부록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경국대전』과 『전율통보』, 『홍재전서』와 『문원보불』 및 실록 등에서 하달문서 14종을 선별하고 내용에 따라 임명문서(任命文書), 전명문서(傳命文書), 재결문서(裁決文書)로 구분했다. 즉 책문, 교명, 교서, 교지, 봉서를 임명문서로, 하교, 전교, 전지, 유서, 유지(有旨), 유지(諭旨), 윤음을 전명문서로,

판부와 비답을 재결문서로 분류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문서마다 해설을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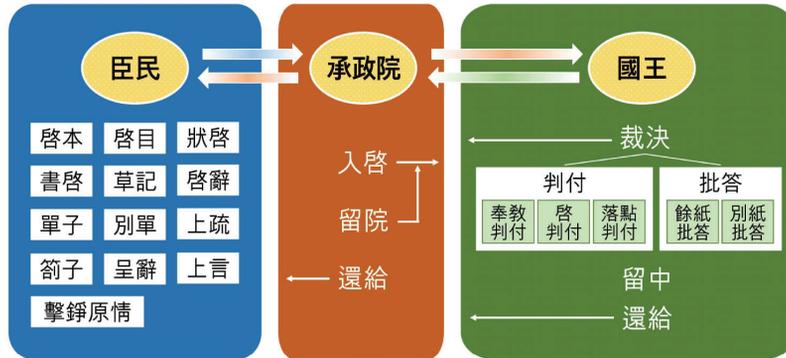
이 책의 특징은 대략 일곱 가지로 손꼽을 수 있다. 첫째, 조선시대에 널리 사용되었던 문서를 신민이 작성해서 국왕에게 제출하는 상달문서와 국왕이 작성해서 신민에게 보내는 하달문서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조선시대에 신민끼리 작성하여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사문서(私文書)는 이 책에서 다루지 않고 오로지 관문서(官文書) 그 중에서도 특히 국왕과 관련된 문서만을 다루고 있다. 그것은 그동안 저자의 관심과 연구가 『승정원일기』나 『일성록』 및 조선왕조실록 등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이러한 국왕 중심의 관찬사서(官撰史書)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주 마주친 상달문서와 하달문서에 대한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작성되었던 모든 문서를 살펴보려는 것에는 미흡하지만, 국왕을 중심으로 그에게 제출하는 문서나 혹은 국왕이 신민에게 전달하는 문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

둘째, 조선시대에 국왕에게 제출된 상달문서나 국왕이 신민에게 전달한 하달문서가 그 이전 시대의 어떤 문서로부터 유래되었으며 어떠한 변천 과정을 거쳤는지를 『고려사』와 실록 및 『승정원일기』 등을 통해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추적해서 그 연원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언제 출현해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에 대해서도 문서사(文書史)의 입장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상달문서 15종 중 계본, 상소, 전문, 치사 등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있었으며 조선의 태조, 태종, 중종을 거치면서 새로운 문서가 출현하거나 혹은 문서의 서식과 명칭 등이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문서의 연원을 규명하고 변천을 추적하는 복잡한 과정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표를 제시하고 있다. 상권 14쪽의 [그림-3]을 살펴보면 여러 종류의 상달문서의 유래와 성립 과정 및 변천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예컨대 고려시대에는 사대문서(事大文書)로 사용되었던 계본이 조선 태조 때에는 상달문서로 변용되는 한편 명칭을 장신(狀申)이라 하다가 태종 때 계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볼 수 있다. 또 같은 쪽의 [그림-2]를 보면 신민이 작성한 상달문서가 승정원을 통해 국왕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국왕이 이 문서를 살펴 결재한 후 그것이 신민에게 어떻게 환급(還給)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저자의 배려가 매우 세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서명	조선시대 이전	조선시대										
		태조	정종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중종	명종	선조	인조	
啓本	啓本(事大)	狀申		啓本								
啓目		消息		啓目								
狀啓		狀啓/書狀						狀啓				
書啓									書啓			
草記									草記			
啓辭								啓辭				
單子				單子								
別單										別單		
上疏	上疏	上疏										
劄子								劄子				
呈辭				<呈辭>					呈辭			
上言				上言								
擊錚原情												擊錚原情
箋文	箋文	箋文										
致詞	致詞	致詞										

(그림-3) 上達文書의 유래 및 성립 과정



(그림-2) 上達文書의 出納 및 裁決 방식

넷째, 원본 이미지를 첨부해서 실제 문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원본이 남아 있는 관문서가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점은 저자의 노력이 크게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관문서는 효력이 다하거나 보존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혹시 참고할 내용이 있으면 원본의 내용을 베껴 등록(謄錄)으로 만든 후 역시 원본을 폐기했다. 따라서 원본이 전하지 않고 등록된 초본(抄本)이나 초책(草冊)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저자는 원본이 없을 경우에는 초본이나 초책을 기어이 찾아 어떻게 해서든 원본의 형태를 추정해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상권 157쪽에 소개한 ‘[사진-20] 1815년 선전관 허간이 올린 봉심적간서계’가 그러한 사례다.

다섯째, 문서식(文書式)을 재현했다. 『전율통보』에는 여러 가지 문서식이 소개되어 있으나 문서 작성자의 직함이나 이름을 쓰는 위치나 행을 바꾸어야 하는 곳 등이 그냥 문장으로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 『전율통보』에 따르면 문서 작성자의 ‘단함(單銜)’을 ‘초첩초행평항(初帖初行平行)’에 쓰라 하고 아뢰 내용은 ‘근계(謹啓)’로 시작하되 ‘계(啓)’는 ‘이항(二行)’에 쓰도록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쉽게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도면으로 재현하여 곧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상권 36쪽에 소개된 『전율통보』 경사계본식(그림-4)이 그러한 예이다.

여섯째, 인용한 원문을 모두 우리말로 번역해서 독자들이 그 내용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정조가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에게 ‘휘목(徽穆)’이라는 존호를 올리면서 작성한 책문은 이러한 종류의 글이 모두 그러하듯 미사여구가 적지 않고 전거가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인용문을 모두 우리말로 번역해서 독자들이 내용 파악을 용이하도록 했다. 인용한 원문은 하나도 빼어놓지 않고 번역했기 때문에 독자들이 문서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한결 덜하다.

일곱째, 문서마다 자세한 해설을 붙였다. 문서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문서와 관련된 전후 상황을 상세히 해설했을 뿐 아니라 문서에 등장하는 새로운 용어 하나하나까지 아주 상세한 해설을 덧붙였다. 예컨대 1795년(정조 19) 10월 22일에 형조판서 이재학(李在學)은 혜민서 주부, 충청도와 경상우병영의 심약(審藥)으로 전흥대(全興大), 변득해(卞得海), 정동신(鄭東臣)을 추천했는데 이때 제출한 찬장계본(薦狀啓本)이 상권 41쪽에 소개되어 있다. 저자는 이 계본의 원문을 전재(轉載)하고 번역한 후 이 문서에 쓰인 찬장,

녹관(祿官), 심약 등의 용어를 상세히 설명하고 해설을 통해 이 문서의 서식과 내용 및 의미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자상하게 서술하고 있다. 즉 독자들이 이재학이 제출한 천장계본의 서식을 이해하고 나아가 번역과 용어 설명 및 해설 등을 통해 문서의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평자의 생각에 목차가 좀 더 용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서술되었으며 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 하권 15쪽을 살펴보면 하달문서를 용도에 따라 임명문서(任命文書), 전명문서(傳命文書), 재결문서(裁決文書)로 분류했으나 목차는 이러한 분류와 상관없이 하교(下敎), 전교(傳敎), 교서(敎書), 교지(敎旨) 순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상달문서는 용도에 따른 분류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하달문서를 용도에 따라 분류했듯이 상달문서도 용도에 따라 보고(報告), 의견피력, 청원, 축하 등으로 분류하고 보고에는 계본, 계목, 장계, 서계, 초기, 기사, 별단을 의견피력에는 상소와 차자를, 청원에는 정사와 상언 및 격쟁원정을, 축하에는 전문과 치사를 속하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물론 상달문서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많아서 위와 같이 명확히 분류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용도에 따라 이와 같이 분류하고 책의 서술도 이러한 순으로 하면 독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이강욱 소장의 『조선시대문서개론』은 최승희 교수의 『한국고문서 연구』 이래 국왕과 관련된 최초의 심화된 개론서라는 점에서 한국고문서학계의 커다란 성과다. 저자는 이 책의 서문에서 고문서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개설한 국내사료 일반과정과 고급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은 『승정원일기』와 『일성록』 등에 수록되어 있는 수많은 문서를 하나하나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느 곳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은 관련 용어와 문서식 등을 각고면려의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탐구하여 터득했다. 저자는 이렇게 축적한 지식을 이 책에서 아주 평이하게 그리고 상세히 소개, 설명하고 있다. 그 결과 고문서를 알고자 하는 독자 누구라도 이 책을 읽기만 하면 난해한 문서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더군다나 이 책은 그가 은대학당에서 고문서를 강의하면서 그 교재로 편찬했고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기 때문에 완성도가 매우 높다. 한국의 고문서를 익히고자 하는 초보자는 물론 이에 대해 더욱 깊게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들도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라며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마다 항상 곁에 두고 펼쳐 보는 참고도서로 활용하시기를 적극 권한다.

